

# VIP REPORT



■ ‘바오파(保八)’가 아시아 경제회복을 선도한다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바오파(保八)'가 아시아 경제회복을 선도한다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바오파(保八)'의 아시아 경제회복 선도 효과 ..... 4

3. 정책적 시사점 ..... 10

■ HRI 경제 지표 ..... 14

## 1. 개요

중국은 과거 10년 간 평균 10%에 달하는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軸)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제 3위 경제대국과 최대 수출국이 됨으로써 외형(外形)이 대폭 확장되었다. 또한 1998년 ~2008년 동안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16.2%에서 21.7%로 대폭 확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유독 중국경제만 상대적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 IMF 등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2009년 세계경제와 교역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2009년 중국경제성장률은 6%~8%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할 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선도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본고(本稿)는 2009년 중국경제의 '바오파(保八)' 실현에 따른 아시아 역내 域內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에 대한 선도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바오파(保八)의 아시아 경제회복 선도효과

중국경제가 '바오파'를 실현하면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1,919.2 억 달러와 1,188 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성장률 1%p 증감에 대한 중국의 수출과 수입 수요 민감도(증분비)는 각각 4.1%p와 7.8%p로 추정된다 따라서 2009년 중국경제가 바오파'를 실현하면, 2008년(9.0%)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1.0%p 둔화된 것으로,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13.1%와 1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중국 GDP와 수출·수입 수요 증분비 >

	GDP	중국의 수출수요	중국의 수입수요	대중국 수출 증가율
증감율	4.4%p 감소	17.9%p 감소	34.3%p 감소	10.5%
증분비	1%p 증감	4.1%p 증감	7.8%p 증감	
예(例)	9% → 8%	17.2% → 13.1%	18.3% → 10.5%	

중국의 '바오파(保八)'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첫째, 중국경제가 '바오파'를 실현할 경우, 域內 주요국의 對中 수출은 588.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홍콩, 일본, 한국이 각각 184.1억 달러, 130.5억 달러, 93.9억 달러

증가하여 수출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는 수출 중 상당 부분이 중국기업의 홍콩을 경유한 허위(虛偽) 거래가 포함되어 실제 증대효과는 훨씬 작을 수 있다.

**둘째, 域內 주요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선도력은 점차 강화되어 과거 일본의 선도력을 대체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 여파로 域內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도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2000~2008년 동안 域內 주요국 중 ASEAN을 제외하고는 對中수출 의존도가 對日 수출 의존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경제가 '바오파'를 실현할 경우, 중국을 포함한 域內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1.2%p(한국 : 1%p ↑)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대만 한국 順으로 견인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오파' 실현에 따른 수출 증가는 중국 자체의 경제성장률을 4.4%p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의 '바오파' 실현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0.3%p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 0.3%p는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3.4%)의 약 10%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2009년 세계경제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중국경제의 '바오파' 실현에 따른 域內 국가들의 對中 수출 증가와 중국의 對外 수출 증가는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을 0.8%p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 '바오파(保八)의 파급 효과 >

(단위 : 억 달러 %, %p)

	실질 수출 증가분	실질 GDP	각국 GDP에 대한 기여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GDP증가율 (2008년)	기여율	수출	GDP	
중국	723.6	16,597	4.4	9.0	48.4	0.8	0.3
한국	89.1	9,043	1.0	2.5	39.4		
인도	10.7	8,192	0.1	7.1	1.8		
일본	143.3	54,049	0.3	-0.7	-		
대만	71.9	4,158	1.7	0.1	1,730.4		
홍콩	176.3	2,065	8.5	2.5	341.5		
ASEAN	41.2	7,532	0.5	4.3	12.7		
중아시아	2.9	534	0.5	5.7	9.5		
합계	1,259.1	102,170	1.2	2.1	57.4		

### 3. 정책적 시사점

단기적으로 한국은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첫째, 주요 품목의 對中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를 이용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한중간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의 定期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공동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영업망 확보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환경 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발주하는 SOC 프로젝트와 과거 국유기업의 독점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진출 기업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기업들에 대한 유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중국 자본의 원활한 국내 투자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2조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진정한 '實力'으로 평가 받고 있다. 중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진입 범위를 부동산 시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중국경제의 선도력 강화에 대비하여, 넷째,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을 더욱 강화하고, 한중 FTA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내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내수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한중 FTA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농업, 경공업 부문과 같이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부품, 소재 국산화 전략에 대비하여 첨단 제품과 서비스 위주로 수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중 61.5%가 부품, 소재로 중국의 국산화에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반 제조업 중심의 對中 수출구조를 탈피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산업과 서비스 수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와 표준 확립을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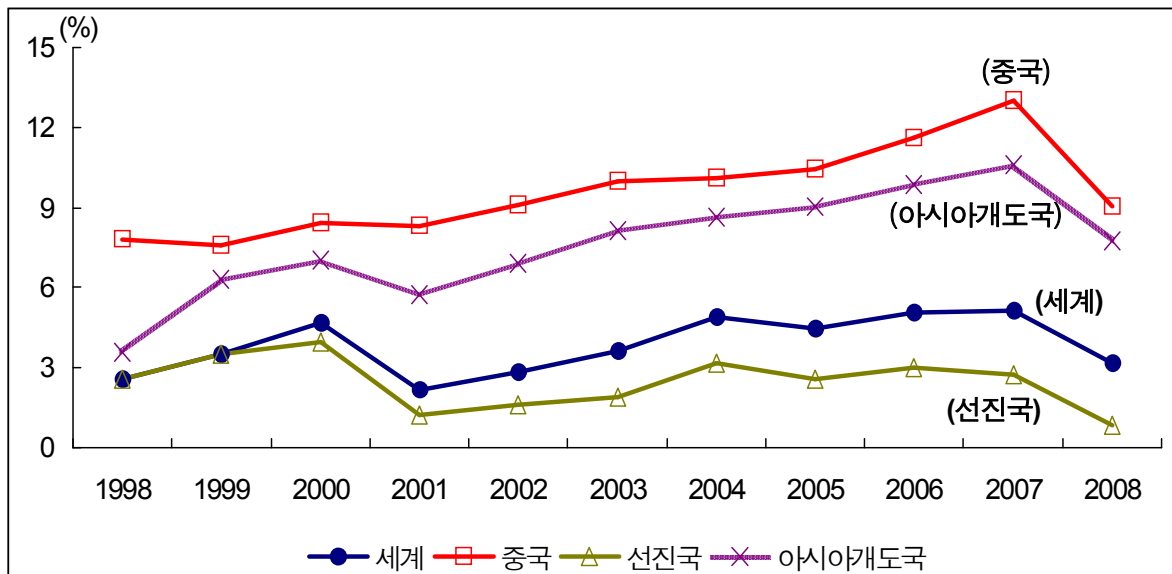
여섯째, 중국 고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산업단지를 육성해야 한다. 중국과 인접한 서남해안에 중국을 겨냥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업, 생물, 제약 분야에 특화된 '테스트 베드'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중국 인접효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 대상 기업을 직접 발굴하고 산업별, 기업별 맞춤형 유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 1.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의 선도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세계경제 부진 지속 : 2009년 세계경제와 교역은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마이너스 증가세 시현에 대한 시각이 우세
  - 세계은행(World Bank)과 IMF는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2.9%와 -1.4%로 전망하였으며, 교역 증가율은 각각 -9.7%와 -1.2%로 전망
  - 한편, 2009년 중국경제는 6%~8%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중국경제의 고속성장 : 과거 10년 간 중국경제는 평균 10%에 가까운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 중국경제가 고속 성장 가도를 달려 온 과거 10년 간 세계경제는 고성장, 저인플레이션의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음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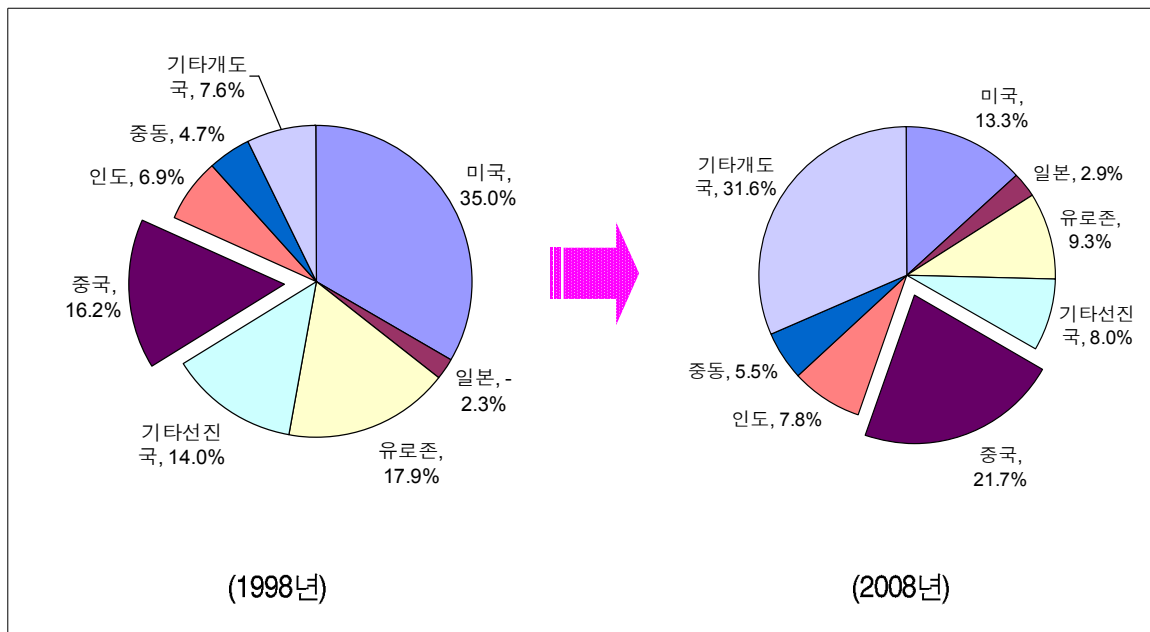


자료 : IMF.

## ‘바오파(保八)’ 가 아시아 경제외복을 선도한다

- 중국경제의 외형 확장 : 명목 GDP 기준으로 중국경제 규모는 과거 10년 동안 4배 정도 확대
  - 2008년 명목 GDP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은 세계 제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
  - 또한 대외교역 측면에서 중국은 전 세계 수출의 7.3%와 수입의 5.9%를 차지 함으로써 2008년에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됨
-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증가 : 그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경제의 기여도가 대폭 확대됨
  - 1998년~2008년 동안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경제의 기여도는 16.2%에서 21.7%로 증가
  - 동 기간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의 기여도는 각각 22%p, 8.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경제의 위상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개도국의 기여율은 30%대에서 70% 대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활약이 돋보임

### < 1998년~2008년 동안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경제 주체별 기여도 변화 >



자료 : IMF.



○ (중국경제 회복 기대) 중국 정부는 2009년 8%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자신하고 있고, 세계 유수 전망기관들은 일제히 예측치를 상향 조정

-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바오파, 즈잉쥬(保八爭九 : 8% 달성, 9% 쟁취)’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 중국 국무원, 인민은행 등 행정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바오파’의 근거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거론
  - 사회과학원은 중국경제가 이미 저점을 통과했다고 보고 있으며,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농업 부문의 급성장세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정부기관의 2009년 바오파 전망 및 근거 >

정부기관	발표자	직책	시점	근거	
행정기관	국무원	원자바오 (溫家宝)	국무원 총리	3월 5일	· 대규모 부양정책 실시
	중국인민은행	판강 (樊綱)	통화정책 위원	4월 3일	· 중국경제에 ‘버블’은 존재하지 않음 · 정부 재정 건전성 높음 ·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전개혁위원회	쉬린 (徐林)	재정금융국 국장	5월 20일	· 1/4분기 경제성장률 예측치 초과 · 정부의 경부부양 능력 충분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위용딩 (余永定)	세계경제 연구소장	6월 19일	· 중국경제 작년 4/4분기에 저점 통과 · '09년 1/4분기부터 회복 가속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샤빈 (夏斌)	금융연구소 소장	7월 4일	· 중국의 농업 부문 급성장세 시현 · 중국 가계 부문의 대규모 저축

자료 : 중국 내 주요 언론보도 정리.

-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는 2009년 중국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
  - 6월 말 세계은행은 2009년과 2010년의 중국경제성장률을 각각 7.2%와 7.7%로 0.7%p 상향 조정
  - 7월 초 국제통화기금도 2009년과 2010년의 중국경제성장률을 각각 7.5%와 8.5%로 1%p 상향 조정함

## 2. 바오파(保八)의 아시아 경제회복 선도효과

○ (중국의 수출·수입 증가) 2009년 중국경제가 8%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13.1%,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9년 중국경제성장률 1%p 증감에 대한 중국의 수출과 수입 수요 증분비는 각각 4.1%p와 7.8%p 증감으로 나타남
  - 2008년 4/4분기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4.3%로 전년동기 대비 17.9%p 급락, 경제성장률은 4.4%p 하락
  - 2008년 4/4분기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8.9%로 전년동기 대비 34.3%p 급락
- 2009년 중국경제가 8%의 성장률을 달성하면, 중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13.1%와 1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9%로, 2009년 8%를 달성하면, 실제로 1%p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8년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18.3%이므로 경제성장률 1%p 감소할 경우, 수입 증가율은 7.8%p 감소하여 1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또한 2008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7.2%이므로 경제성장률 1%p 감소할 경우, 수출 증가율은 4.1% 감소하여 1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중국 GDP와 수출·수입 수요 증분비<sup>1)</sup> >

	GDP	중국의 수출수요	중국의 수입수요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
증감율	4.4%p 감소	17.9%p 감소	34.3%p 감소	10.5% <sup>2)</sup>
증분비	1%p 증감	4.1%p 증감	7.8%p 증감	
예(例)	9% → 8%	17.2% → 13.1%	18.3% → 10.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세관(海關).

주 1 : 중국의 GDP와 수출, 수입 수요 증분비는 경기가 급락하기 시작한 2008년 4/4분기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

주 2 : 2009년 주요국의 對 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인 10.5%를 적용.

○ (域內 주요국의 對中 수출 증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들은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중국경제의 8% 달성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음

-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對 중국 수출 의존도는 18.7%에 달함
  - 인도와 ASEAN을 제외한 주요국들의 對 중국 수출 의존도는 10%를 초과
  - 특히, 홍콩은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50%에 근접해 가장 높았으며, 대만과 한국은 20% 대, 일본도 16%를 기록
- 2009년 중국이 8% 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중국과 주요국의 수출은 2,507억 달러 증가, 실질로는 1,25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1,919억 달러, 홍콩, 일본, 한국은 각각 184억 달러, 130억 달러, 93억 달러 증가가 예상됨

< 아시아 주요국의 2008년 대중 수출 의존도 및 2009년 수출 증가분 추이 >

(억 달러, %)

	총수출	비중 (대중의존도)	대중 수출	명목 증가분	실질증가분	
						Deflator
중국	14,650	-	-	1,919.2 <sup>주4</sup>	723.6	265.2
한국	4,190	21.2	889	93.3	89.1	104.7
인도	1,757	8.6	150	15.8	10.7	147.7
일본	7,768	16.0	1,243	130.5	143.3	91.1
대만	2,557	25.3	647	67.9	71.9	94.4
홍콩 <sup>주1</sup>	3,621	48.4	1,753	184.1	176.3	104.4
ASEAN <sup>주2</sup>	8,795	8.9	785	82.4	41.2	199.9
중앙아시아 <sup>주3</sup>	1,318	10.1	134	14.1	2.9	486.5
합계	44,656	18.7	30,006	2,507.3	1,259.1	199.1

자료 : IMF, ADB, CIA.

주 1 : 홍콩의 對中 수출 중 상당 부분은 중국기업들이 증치세 환급을 위해 홍콩을 경유한 虛偽 거래

주 2 : ASEAN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주 3 : 중앙아시아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주 4 : 중국의 수출 증가분은 GDP 대비 수출 증분비 13.1%를 적용.

## ‘바오파(保八)’ 가 아시아 경제외복을 선도한다

○ (중국의 선도력 확대) 아시아 역내 주요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선도력은 증가하는 반면, 일본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기대

-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 여파로 인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도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임
  - 2000~2008년 동안 아시아 역내 주요 교역국 중 중앙아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지역)의 對 일본 수출 비중이 감소
  - 세계은행, IMF, OECD 등 주요 전망기관들은 2009년 일본경제 성장률을 -6.0%~ -6.8%로 전망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서 중국경제의 아시아 역내 국가들에 대한 선도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과거 일본의 영향력을 대체
  - 2008년 현재 ASEAN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對 중국 수출 비중이 일본을 초과
  - 2000~2008년 동안 아시아 역내 주요 교역국의 對 중국 수출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일본의 對 중국 수출 비중도 2.5배 증가

### < 역내 국가들의 對 중·일 수출 비중 변화 >

(단위 : %, %p)

	對 중국			對 일본		
	2000	2008	증감	2000	2008	증감
중국	-	-	-	16.3	7.4	△8.9
한국	10.2	21.2	11.0	11.3	6.9	△4.4
인도	1.8	8.6	6.8	4.1	2.4	△1.7
일본	6.3	15.3	9.0	-	-	-
대만	2.9	25.3	22.4	11.2	10.8	△0.4
홍콩	34.1	48.4	14.3	5.5	4.5	△1.0
ASEAN	3.7	8.9	5.2	12.6	9.4	△3.2
중앙아시아	4.1	10.1	6.0	0.5	0.7	0.2

자료 : ADB, Japan Statistics Bureau.

○ (중국 선도력 국가별로 상이하게 작용) 중국경제가 ‘바오파’를 실현할 경우,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과 對中 수출품목의 합치도<sup>1)</sup>가 높은 한국, 대만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역내 주요 국가들 중에서 對中 수출 품목의 합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전체 對中 수출에서 중국의 15대 주요 수입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1.6%로 가장 높고, 대만, 일본, ASEAN, 인도 순으로 나타남
  - 중앙아시아와 홍콩은 합치도가 80% 미만으로, 중국의 ‘바오파’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수출 품목의 구성 측면에서 한국, 대만, 일본은 15대 품목에 치중 됨
  - 한국, 대만, 일본은 對中 수출이 중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15대 품목의 수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중국의 주요 수입 품목과 각국의 대중 수출의 합치도 >

(단위 : 백만 달러, %)

	대중수출 <sup>①</sup>		합치도 ②/①	②/중국 15대 품목 수입	①/중국 수입
		15대 품목 대중 수출 <sup>②</sup>			
한국	35,063	32,113	91.6	11.2	10.4
대만	27,578	24,643	89.4	8.6	8.2
일본	43,702	37,920	86.8	13.2	13.0
ASEAN	34,677	29,441	84.9	10.3	10.3
인도	5,682	4,555	80.2	1.6	1.7
중앙아시아	2,243	1,666	74.3	0.6	0.7
홍콩	2,915	2,155	73.9	0.8	0.9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중국 수입과 對中 수출 품목 합치도는 국가별 전체 대중 수출에서 중국의 15대 주요 수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 ‘바오파(保八)’ 가 아시아 경제외복을 선도한다

○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2009년 들어 중국의 수입은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품목 별로도 감소세가 뚜렷함

- 2009년 1월~5월 동안 중국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나 감소
  - 국제 상품가격 하락과 기저(基底)효과로 1월 수입증가율은 -40% 대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음
- 2009년 들어 중국의 15대 품목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과 비슷한 수준임
  - 2009년 1월~5월 동안 중국 15대 품목의 수입 중 철강재와 항공기·부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대의 감소세를 보임
  - 그러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2%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하는데 그쳐 중국 수입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 차지

### < 2009년 1월~5월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 비중과 증가율 >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	금액	비중	증가율
총계			336,257	100.0	△28.0
	85	전기전자·부품	81,959	24.4	△23.1
	84	기계장비	44,614	13.3	△20.8
	27	에너지자원	35,089	10.4	△48.7
	26	광물자원	24,428	7.3	△32.7
	90	광학·정밀기기	21,479	6.4	△36.6
	39	플라스틱제품	15,915	4.7	△21.7
	29	유기화합물	13,296	4.0	△25.1
	72	철강재	10,700	3.2	5.9
	74	동·제품	8,676	2.6	△28.7
	87	자동차	8,074	2.4	△29.5
	12	유지작물	7,777	2.3	△8.4
	88	항공기·부품	3,939	1.2	11.8
	47	펄프·종이	3,860	1.1	△28.8
	73	철강제품	3,447	1.0	△17.5
	40	고무·제품	3,325	1.0	△33.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중국 수입 중 명목 달러화 표시 금액 기준으로 전체 수입의 1% 이상인 15개 품목을 선정.

○ (域内 주요국과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 전 세계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선전(善戰)은 域内 주요국과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큼

- 域内 국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 중국의 '바오파(保八)'는 중국을 비롯한 域内 주요국의 GDP 성장률을 1.2%p 견인하는 효과가 있음
  - 1.2%p는 域内 주요국들의 2008년 GDP 성장률의 57.4%를 차지, 특히 對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홍콩, 대만 경제에 대한 기여율이 높게 나타남
-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 중국의 '바오파'는 域内 주요국의 對中 수출 확대를 통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0.3%p 견인하는 효과가 있음
  - 0.3%p는 2008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의 10%를 차지
  - 동시에 중국경제의 '바오파(保八)'에 따른 중국의 수출과 域内 국가들의 對 중국 수출 증가는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을 0.8%p 견인

< '바오파(保八)의 파급 효과 >

(단위 : 억 달러, %, %p)

	실질 수출 증가분	실질 GDP	각국 GDP에 대한 기여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GDP증가율 (2008년)	기여율	수출	GDP	
중국	723.6	16,597	4.4	9.0	48.4	0.8	0.3 (10%)
한국	89.1	9,043	1.0	2.5	39.4		
인도	10.7	8,192	0.1	7.1	1.8		
일본	143.3	54,049	0.3	-0.7	-		
대만	71.9	4,158	1.7	0.1	1,730.4		
홍콩	176.3	2,065	8.5	2.5	341.5		
ASEAN	41.2	7,532	0.5	4.3	12.7		
중앙아시아	2.9	534	0.5	5.7	9.5		
합계	1,259.1	102,170	1.2	2.1	57.4		

자료 : IMF, ADB, 한국은행.

### 3. 정책적 시사점

#### 가. 평가

○ 域內 경제 및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선도력은 충분해 보이며,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중국이 당초 목표인 ‘바오파, 즈영쥬(保八爭九)’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은 최소 세계경제 성장률 0.3%p, 수출증가율 08%p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 域內 주요국에 대한 중국경제의 선도력은 점차 강화되어 과거 일본의 선도력을 대체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8% 경제성장은 한국경제 성장률 1%p 견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의 합치도가 높아 긍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

#### 나. 시사점

○ (단기적 관점)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은 단기적으로 對中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고 중국 자본의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함

- 수출 마케팅 강화 : 주요 품목의 對中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를 이용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함
  - 중국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한중간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의 정기(定期) 교류를 확대
  -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공동 마케팅 활동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영업망 확보에 필요한 정보와 금융을 제공
- 정부간 협력 강화 :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



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중국 정부가 발주하는 SOC 프로젝트와 과거 독점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
- 중국 진출 기업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유도 정책이 필요

- **중국 자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 중국 자본의 원활한 국내 투자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함

- 2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을 보유한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부 펀드(SWF : Sovereign Wealth Fund)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중국 자본의 국내 진입 범위를 부동산 시장 등으로 확대


○ **(중장기적 관점) 중국경제의 선도력 강화에 대비해 한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수출환경 개선, 수출전략 전환 및 중국 向 산업단지 육성이 필요**

- **對中 수출 환경 개선** :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을 더욱 강화하고, 한중 FTA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내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내수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한중 FTA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함
- 특히 농업, 경공업 부문과 같이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對中 수출 전략 전환** : 부품, 소재에 대한 중국의 수입 대체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제품 및 서비스 위주로 수출 전략을 전환해야 함

-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한국의 對中 수출 비중이 높은 부품, 소재의 수입

- 을 대체하기 위해 산업진흥계획을 실시
  - 따라서 한국은 일반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탈피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첨단 산업과 금융, 물류, 교육 등 서비스 수출로 방향 전환이 필요
  - 또한 국내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세계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적 우위를 넘어 표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국을 겨냥한 산업단지 육성** :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산업 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중국을 겨냥한 산업단지를 육성해야 함
- 서남해안을 중국을 겨냥한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농업, 생물, 제약 분야에 특화시키기에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 확충
  - 또한 유치 대상 기업을 직접 발굴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치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만용 연구위원 (02-3669-4123, danieli@hri.co.kr)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구 분		2008(E)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체	상반기	하반기	전체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5	4.3	3.1	-3.4	2.2	-4.1	-0.2	-2.2	
	최종소비지출 (%)	3.9	2.6	2.0	-1.9	1.6	-2.2	-0.6	-1.4	
	민간소비 (%)	4.0	2.3	1.4	-3.7	0.9	-4.2	-1.4	-2.8	
	총고정자본형성 (%)	-0.5	0.6	1.8	-7.3	-1.7	-5.0	0.4	-2.3	
	건설투자 (%)	-1.9	-0.3	0.2	-5.6	-2.1	1.8	1.9	1.8	
	설비투자 (%)	1.5	1.1	4.3	-14.0	-2.0	-20.3	-2.6	-11.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2.1	-1.3	-85.8	75.2	-64.1	175	70	245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66	-3	-79	15	-133	156	21	177
		수출 (억 \$)	994	1,145	1,152	931	4,223	1,669	2,006	3,675
		증가율 (%)	(17.4)	(23.1)	(27.3)	(-9.9)	(13.6)	(-22.0)	(-3.6)	(-12.6)
		수입 (억 \$)	1,061	1,148	1,231	915	4,353	1,513	1,985	3,498
증가율 (%)	(28.9)	(30.5)	(43.0)	(-9.0)	(22.0)	(-31.5)	(-7.4)	(-19.6)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4.7					2.9			
	실업률 (%)	3.2					4.0			
	국제유가(Dubai, 달러)	94.29					65 달러 내외			
원/달러 환율(원, 평균)		1,103.36					1,250			